



사진은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 삽화. (아는컴퍼니 제공)

# “함께 가면 길이 된다”...광주형 일자리 해설서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 박병규저음



“노사 관계는 대립적이지만 협조하면 더 많은 이익을 이뤄냅니다.”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이 대기업 노조의 변화를 일구고, 행정으로 새로운 경

제정책을 실천해냈다.

‘광주형 일자리’ 최초 설계자인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 (아는컴퍼니)을 출간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와 참여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그 첫번째 성과물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 개선과 민간부문에서의 자동차공장 설립이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짚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사회적 대화와 참여가 반드시

## 박병규 전 부시장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 출간 광주형 일자리 설계자...제2·3의 GGM 방향 제시 소년 노동자에서부터 경제부시장까지의 삶 담겨

필요한지라 또 하나의 민주화 과정이다.

저자가 오랜 고민들을 풀어 새벽마다 써낸 글 속에는 시대의 희망이 어떻게 짝을 띄우고 꽃 피고 열매 맺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박 전 부시장은 “힘 있는 노동조합이 연대하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협력은 경쟁보다 힘이 세다”며 “좋은 일자리는 좋은 주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정신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는 개수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가 갈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낮은 임금이나 복지의 일자리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소년 노동자로 현장에서 출발한 그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노동조합위원장을 3번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장과 경제부시장을 지낸다.

시장이 바뀐 뒤에도 광주시의 요청에 의해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며 자동차공장 유지를 해낸다. 그의 실천의지와 독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저자는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산이듯,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현황판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라면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두루 거치고 기업과 노동, 경제와 행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성수 전 광주전남연구원장은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어려운 지역문제를 풀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박 전 부시장을 평가했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광주형 일

자리라는 이 거대한 기획과 실천을 하면서 박병규는 언제나 다른 사람 옆에서 함께 걸었다”며 “바닥부터 걸어온 그를 참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 더 나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행복으로 엮을 수 있는 상생의 길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 속 미래 세대에 던지는 저자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청년들에게 지금 처해진 환경이 전부는 아니에요.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 사람은 여러 번 새로운 계기들을 맞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청년 세대들에 어느 정도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부시장은 지속 가능한 광주형일자리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광주형일자리는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노사의 상생을 위한 사회 안팎의 노력이 필요하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조한다면 제2,3의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강봉희 저자

이 책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죽은 이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어느 장례지도사의 기록이다. 40대 중반, 암에 걸려 저승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돌아온 저자는 그때부터 죽음을 돌보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2004년부터 700여 명의 고독사 사망자들과 기초수급자 고인들의 장례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도맡아왔다.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는 오래도록 죽은 이들의 마지막을 목격했던 그가 들려주는 죽음과 장례의 의미, 삶과 인간에 관한 길고 긴 성찰의 궤적이다. /사이드웨이·1만5천원



▲할렘 서풍=클론 화이트

헤드 지음, 김지연 옮김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풀리처상을 두 번 수상하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운 클론 화이트헤드의 신작 ‘할렘 서풍’이 출간됐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니름의 소년들’로 풀리처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더블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클론 화이트헤드는 현대 미국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끊임없이 폭넓은 주제와 장르에 도전하며 문학적 지평을 넓혀온 작가는 이번 신작에서 케이퍼 픽션을 선보인다. /은행나무·1만6천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손홍민 저자

손홍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축구 지도자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손홍정 감독의 메시지는 ‘삶의 본질’에 초점이 맞춰 있다. 축구선수로 뛰던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며 ‘나처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홍민 선수를 교육했고,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술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선수로,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고 믿었다. 손홍정의 교육 방향,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는 이 책을 통해 최초로 자신의 삶의 궤적과 생각들을 담담히 풀어놓았다. /수오서재·1만6천원



▲우리는 매일을 헤매고, 해내고=임현주 저자

MBC 아나운서이자 작가로서, 매일 방송국 안팎에서 밝고 자상한 에너지로 돌레의 회로애락을 전하는 임현주 아나운서가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책으로 기록했다. ‘우리는 매일을 헤매고, 해내고’는 일을 둘러싼 인간관계, 크고 작은 사건들, 매일매일의 감정과 깨달음을 세심히 나누는 ‘모두의 매일을 위한’ 위로와 응원의 에세이다. 13여년간 모인 자신의 경험담부터 오랫동안 소셜미디어로 듣고, 상담하고, 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선명하게 담았다. /한겨레출판·1만4천원

# 청년 세대가 말하는 오월 그날의 이야기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기획  
김꽃비씨 등 청년 10명 ‘포스트 5·18’



5·18 이후 세대인 청년들의 삶과 고민, 상상이 담긴 오월 그날을 이야기하는 책이 나왔다.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는 10명의 청년 필진과 함께 ‘포스트 5·18’(문학들)을 출간했다.

지금 세대에게 5·18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어려운’ 사건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5·18은 웹툰,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무거움보다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5·18을 부인하고 폄하하며 왜곡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5·18의 진실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떤 5·18 경험자들은 항쟁의 10일만을 강조하며 5·18

에 다른 민주·인권·평화의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기념관과 전시는 죽음과 항쟁만을 얘기하며,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삶과 표정들에 대해서는 눈감는다. 때문에 5·18은 당시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으며 지금 세대의 삶과 고민, 상상에는 쉽게 와닿지 않았다. 5·18을 마주하게 된 사연들은 제각각이지만 저자들은 1980년 오월의 다양한 얼굴을 드러내고자 했다.

김꽃비, 김지현, 이하영, 박은현, 김동규, 김유빈, 백성동, 박경섭, 이자영, 서다솜씨가 집필에 참여했고 이경욱씨가 삽화를 그렸다.

오월의 이미지를 담은 염서를 만들어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작업,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오르골에 담은 활동, 광주의 할머니들과 요리를 통해 밥 먹듯이 5·18을 기억하고자 한 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월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초등학교생들에게 5·18을 가르치는

선생님, 광주를 넘나들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

저자들은 오월 이후의 세대에게 항상 발언의 자격을 의심 받지만 그들에게는 저마다의 오월이 있다.

이들에게 ‘포스트 5·18’은 5·18이 항쟁 당시의 10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새로운 상상력에 열려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5·18민주화운동에서 ‘이제 5·18은 세대 간 소통과 다름의 장이 된 것인가?’라는 질문은 따분하고 짜증나거나 진부한 질문이 아니다. 다음 세대에 의해 재전유되거나도 전받지 않은 모든 것은 기록보관소에 저장되는 것으로 생을 마치게 되기 마련이다.

이들의 목소리에서 5·18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된다. ‘포스트 5·18’에 담긴 목소리는 5·18민주화운동사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최명진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